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강의실 외판원 출입 학생들 피해 커 학교당국, 불법 상행위 제재 필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이때 학교내의 각 강의실에는 무리가 외판원이 수사로 나타나 신입생들이 혼란을 빚고있다. 이들은 대부분 3~4명이 작을 이루어 다니는데, 보통 수업시간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강의실에 출입한다.

안성모
(정외·2)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 시급 비흡연 장소에서 껍연 자제해야

어느새 교정안에 도사란 불기운이 돌면서 봄의 문턱에 다가섰음을 느끼게 한다. 학우들의 외투가 점점 얇아지고, 수원 배움터의 승차장에서 등하교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의 햇살은 더욱 더 따스함을 더해간다. 친구와 차를 기다릴때면 여학생의 경우 담소를 나누거나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게 된다. 담배를 피우는 그 자리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공공연히 지정된 껍연실도 아닌 길거리라는 점에 유의를 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앞뒷 줄의 사람들 고려하지 않은 채

도서 미납으로 대출 어려워 대학인 스스로 이타심 고취 절실

서울배움터의 웅장한 고딕식 도서관과는 대조적으로 학생회관 내에 2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배움터는 구비된 도서량도 서울캠퍼스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외대과 공대의 열람실을 찾을 때마다 수원캠퍼스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며칠전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인 '태백산맥'을 빌리기 위해 외대내의 열람실을 찾던 필자는 재차 삼차 실패의 쓴맛을 마셔야했고 오랜만에 불같이 타오른 독서열기를 당구장에서 식혔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다.

누구나 대학에 들어와 폭넓은 분야의 책을 읽어 해박한 지식을 갖춘 대학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

이인수
(외대영문·1)

교수동정

조성원교수 몽골 방문
【서울캠퍼스】▲조성원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정경대·정치학교수) =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국제세미나 준비위해 몽골 방문

습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 = ▲김한성(물리·89) ▲강동규(법·6) ▲이현민(경제·91) ▲단체형(경영·86) ▲윤형구(무역·87) ▲김봉성(무역·86) ▲석승현(간호·88) ▲성미경(간호·89) ▲안상훈(한·의·90) ▲김란희(작곡·91) ▲황지현(기안·90) ▲도서대출증 = ▲노현준(영문·88) ▲윤미숙(사·학·91) ▲한용섭(지리·87) ▲이종현(무역·90) ▲김길래(영·89) ▲김종관(영·89) ▲이형욱(가·90) ▲전재현(한·의·90) ▲학생수첩 = ▲김현경(사·학·88) ▲정현조(무역·89)

【수원캠퍼스】▲학생증 = ▲오창식(영문·90) ▲정형근(중문·86) ▲최승준(서·반·83) ▲우정아(서·반·87) ▲정남용(경영·86) ▲오해식(경영·90) ▲유재현(경영·91) ▲여인걸(경영·84) ▲남경호(경영·87) ▲이성기(무역·88) ▲윤순구(무역·91) ▲고용준(무역·85) ▲이진하(무역·85) ▲이승영(회계·84) ▲허노관(회계·84) ▲곽원우(환경·90) ▲정광하

고현주
(물·2)

(수·학·84) ▲엄주호(수·학·88) ▲이창준(물리·91) ▲김만일(화학·83) ▲이현재(물리·88) ▲이상신(유전·85) ▲허재형(우·86) ▲최승준(기계공·89) ▲안해중(전자공·89) ▲이규용(전자공·90) ▲주기봉(전자공·87) ▲이상봉(화학공·88) ▲최익준(화학공·85) ▲안희태(화학공·84) ▲권성훈(건축공·89) ▲장대진(건축공·85) ▲지형두(건축공·87) ▲이진희(건축공·87) ▲도서대출증 = ▲주동용(행정·88) ▲강해영(회계·90) ▲정현태(회계·86) ▲이승영(회계·84) ▲구형호(수·학·89) ▲조창식(물리·84) ▲김진수(유전·87) ▲김동욱(유전·85) ▲정민준(환경·87) ▲고영승(기계공·88)

▲최정명(경영·3) ▲김영민(무·의·2) ▲원기호(무·의·2) ▲이지희(회계·2) ▲김태훈(물리·2) ▲김정선(환경·3) ▲박신미(환경·1) ▲김영주(유전·4) ▲신나영(유전·4) ▲오진희(우·3) ▲김종훈(우·4) ▲심창열(기계공·2) ▲김우일(기계공·3) ▲문석현(기계공·3) ▲강비오(기계·4) ▲임종한(기계공·2) ▲황영은(기계·3) ▲유원일(섬유공·4) ▲

도서미납자

【서울캠퍼스】▲우승환(국문·1) ▲이창원(국문·2) ▲이연의(국문·2) ▲이기우(영문·2) ▲오승업(영문·3) ▲김병진(영문·3) ▲이유미(영문·40) ▲진선목(영문·1) 최철(사·학·2) ▲하승균(사·학·2) ▲김재호(생물·2) ▲이성현(생물·2) ▲박진희(문리대·수·학·1) ▲박정진(법·학·2) ▲이강성(행정·2) ▲장광호(정의) ▲김영진(정의·3)

【수원캠퍼스】▲허현우(우·4) ▲하승희(우·4) ▲박세원(우·2) ▲김강수(물리·4) ▲박수홍(물리·4) ▲정훈(물리·3) ▲박세홍(물리·2) ▲하유호(물리·2) ▲남궁운관(수·학·3) ▲김대성(화학·3) ▲박정환(화학·2) ▲김경호(환경·2) ▲이기용(유전·4) ▲우태욱(유전·4) ▲고세일(유전·3) ▲김홍은(산·공·2) ▲김승현(화학·3) ▲신종섭(기계·2) ▲변진진(원·자·4) ▲박병태(전자·4) ▲김병동(전자·4)



동기

동기를 총무과로

【수원캠퍼스】▲김현경(영문·2) ▲이정주(영문·2) ▲임동원(영문·3) ▲백일환(물·2) ▲박미연(물·3) ▲이진(물·4) ▲김종학(물·3) ▲손영희(중문·3) ▲문정민(서·반·1) ▲정지용(행정·2) ▲정호진(행정·3) ▲김진기(행정·3) ▲안영주(경영·4)

황영근(전자공·2) ▲황학순(전자공·4) ▲신재환(화학공·2) ▲황필순(화학공·3) ▲이주환(화학공·4) ▲이정환(화학공·4) ▲김지연(건축공·2) ▲이희철(토·목·공·4) ▲강병산(토·목·공·4) ▲김상삼(산·공·4) ▲김세현(산·공·3) ▲지영익(산·공·3) ▲민경은(산·공·2) ▲오부경(전자·4) ▲김정호(산·공·2) ▲송영

완전한 자유의 참된 조건

4월 주제 '자유'

일제하의 폭탄 8·15후에도 우리 민족은 몸서리 자유스럽지 못한 세상을 살아온 듯 싶다. 언론 집회 결사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는 소리가 계속 높았고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4·19를 성취시켜 자유를 구가하게되고 그후 국력을 꺾으면서도 민주화에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참 해소는 결국 심신을 수습하는 등 자신의 근본 조건을 바꾸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문화가치의 추구만이 참으로 자신을 편달시키고



박성봉
(문리대교수·사학)

우리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를 가능하는 정치 경제의 차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참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성취의 단맛을 맛보게하는 것이므로 경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공을 넘어서까지 남에게 기쁨과 이로움을 주게되며 자신의 즐거움 또한 이를 대 없이 확충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 갖다는 지난날 수도자들의 경치가 새삼 주목되며, 참다운 자유성의 표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재음미할 필요를 느낀다. 인생살이의 모든 병폐

가 누구나 안식(眼識)의 부조(不調)에서 시작되고 매듭되는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는 것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는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는 것이되어 이를두고 원인(元因)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원래 타고난 원력(元力)을 제대로 발현하고 충족하는 진정한 노력없이 그냥 초능력 등으로 남의 일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는 종교나 교육의 부실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산업화·정보화사회가 무르익으면서 개개인이 자기주체적 성취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요망하는 터라 노력하여야 마땅하는 우리에게 전무한 좋은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를 가능하는 정치 경제의 차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참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자신과 온나라의 생활의 질이 좌우될 게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 정말 지적체의 심신건강 연마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원인(元人)의 경지에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참 자유는 그만큼 확충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는다.

"제 만화의 정신적 지주는 '놀이'입니다"

만화가 이정문(상학과 61입학) 동문만나



하얀 할 컷이라며 간헐을 위원의 심의 및 규제를 만화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공주전대의 만화화과'처럼 만화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 만화의 발전상을 밝히는 이 동문은 금년 초까지 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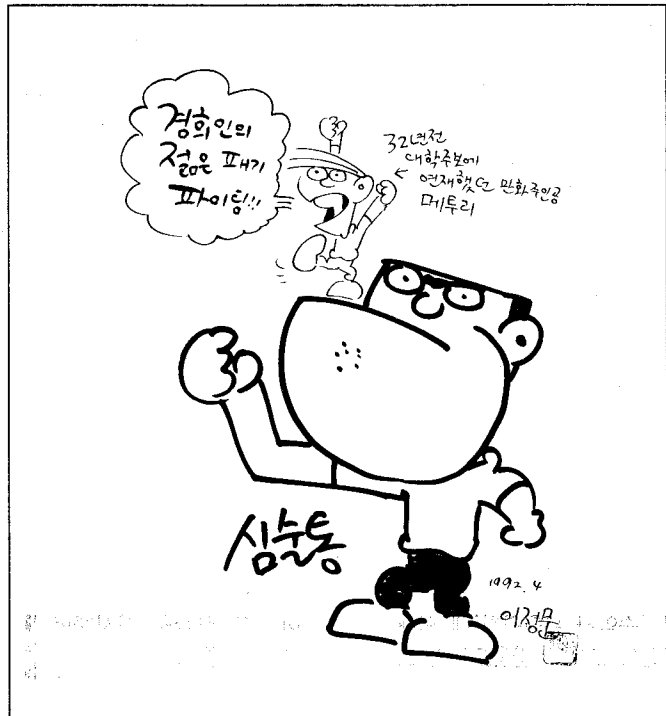
만화가들의 그림이 한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를 맞이한 이정문(상학과·61입학)동문은 실존만화의 독보적 존재로서 자신의 만화를 지향하는 정신적인 지주는 놀부라며 말문을 열었다.

"만화 주인공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만화의 1차적 기능은 완수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급증할 만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유교적 관념의 벽을 넘어

은 주제를 그때마다 소화해내기 위해선 평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건 무척 힘든 작업이니까요"라며 작가로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현재 학내창상을 문단 그는 재학시절 4·19와 5·16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군복을 물들여 입었던 것과 옛날의 맑은 복제전 정도라고.

또한 고무영, 윤승운, 신문수, 박수동씨 등 친분이 있는 작가와 10년간 '심수화'를 만들 정도로 낯익었던 그는 비록 불



우리나라에서 나돌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해적판 만화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만화, 영화를 이러한 식으로

퍼뜨려 독자들의 취향을 이른바 '일본식'으로 변화시켜 언젠가 우리나라의 만화 시장을 휩쓸어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임이다. "라며 이러한 문화적, 상업적 침투를 막기 위해서도 전통 만화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며 만화의 의의를 새삼 강조하기도

외국만화 침투 막기위한 전통만화의 보급이 시급

협회 감사를 맡기도 했으며 지금은 스포츠 서울에 연재하던 '심수화'를 끝마치고 심술의 재충전기간으로써 다른 작품을 준비중이라고 근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그는 "만화가의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

교만화를 그리면서 쓸데없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낚시를 놓았지만 낚시=가다림이라며 요즘 세대의 성급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인 강태공의 마음세를 지녀야 한다고 '가다림의 미덕'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화왕국인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고,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입니다.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는 좁은 울타리를 박하고 타 문명세계에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국제시장을 향해 대우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960년대—

그때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이같은 타국인들의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내부에 팽배해있는 절망감은 오히려 희망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5명의 직원과 자본금 5백만원으로 시작한 대우는 세계는 넓고, 그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우의 동풍은 타기업의 국제화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는 대우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대우가 창업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 뜨거운 집념을 보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이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언젠가 대우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개발 차원에서 곧바로 해외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무역업체가 세운 최초의 해외지사로 기록되는 대우의 시드니 지사와 싱가포르 지사—

이 두 지사는 도전정신과 용감충치는 젊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우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인지사로 출발한 싱가포르 지사의 차장이었던, (주)대우운역사 창설기 대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1인지사, 말만 들어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지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정신없이 뛰어 다녔지요. 그래서 '고독'이나 '외로움'같은 말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들 해외개척의 화신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이었고 대우였지요.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첫번째가 대우의 74번째

동구권 시장개척은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0년대 말 동구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빠른 장벽을 무너뜨리고 연이어 소련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로 동배를린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대우의 74번째 지사인 동배를린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권 무역지사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구 소련의 모스크바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도 지사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해외개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 닫힌 세계를 열려 세계로 만드는 대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우가 갈 수 없는 땅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럽의 심장 파리과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경

계의 상징 북경을 거쳐 과거 '철의 장막'의 관문이었던 하바로프스크에 이르기까지 대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우의 84개 해외지사— 전 세계에 펼쳐진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날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에서 우연히 프랑자 한 대를 목격 했을 때 어떤 감회에 사로 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판 차가... 짜임하고 가슴을 찢어지죠.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대우 자동차 한 대를 쳐다보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는 (주)대우 추호석 사의 말처럼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시장개척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한 예로, 리비아는 좌절회교국으로 대우가 진출할 당시 북한공관 이 설치되어 있던 미소국이었었습니다. 석유부국이었던 축적된 기술이 없어 해외기업을 통해 건설사업을 해결한다는 기회를 포착, 대우는 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시장에 본격 상륙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대우가 최초로 수행한 가리우니니사 의과대학 신축공사를 계기로 호텔, 고속도로, 비행장 등을 수주했고 '80년대에는 트리폴리와 뱅가지에 1만 3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그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1년에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총수주액의 38%를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우즈(Auzou) 비행장을 건설할 때는 정부자료들이 예고없이 건설현장을 방문, 10여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기도 해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의 의지를 심고 민간사절로서의 몫을

25
정오 도산 창생 - 대우 25년
1992 - 대우 기술발전 25년

「TЭУ」
DAEWOO

ВАШ ЛУЧШИЙ ПАРТНЕР

■ 그곳에 우리는 왜 가는가? 한국경제의 세계화만이 우리(저희)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진은 모스크바의 야경을 배경으로한 대우의 옥외광고)